

인천지역 우리쌀 팔아주기 촉구 결의문

지금 우리는 한국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미 우리밀은 이 땅에서 사라져 생산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린지 오랜 일이며 그나마 자급이 되는 우리쌀도 수입 전면개방화와 소비자 판매 허용, 그리고 우리들의 우리쌀 외면으로 우리 농업과 농민은 설자리를 잃어 버리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농업의 위기는 농민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생존권의 위기이며, 식량주권없이 국민의 식품안전권은 보장될 수 없고 농업으로 유지되던 농촌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져만 갈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농산물 개방확대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쌀 판매가 부진하여 전년대비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어, 인천지역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인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을 통해 인천지역 우리쌀을 팔아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작금의 상황은 우리농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농민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식량주권, 시민의 건강이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각성된 소비자 의식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린다.
1. 농업과 쌀의 위기를 농민이 아닌 소비자 시각으로, 소비자 감성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로 소비자를 직접 설득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인천지역 우리쌀 팔아주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을 원료로 하는 각종 가공 식품개발 등 정책개발을 하고 인천지역의 각급학교 및 단체는 인천지역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인천시는 인천지역 쌀의 우수성을 인천시민 및 출향 인사에게 홍보하여 인천지역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2009. 9. 2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